

복음과 율법 6장. 신자의 정체성 :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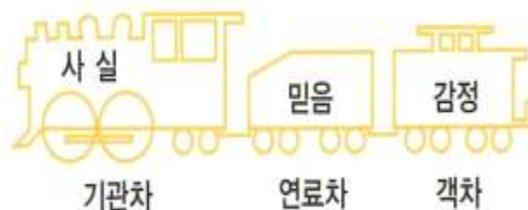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¹⁾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6:3-11)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곧 그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릴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첫 번째 정체성인 ‘신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할 때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뤄진 사실이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마찬가지로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은 자신의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과 **감정**(믿음과 순종의 결과)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로, 많은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교종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설명을 보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다고 합니다(롬 6:3, 4, 5, 6, 8).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신자 자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짚자면 경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뤄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장사된 자’ 라고 합니다(롬 6:4). 여기서 ‘장사되었다’ 는 말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것처럼 완전한 죽음을 확정한 표현입니다.

이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것(롬 6:4.5,8)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이 언젠가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란 소망에 대한 것뿐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사는 것도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여 최종적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여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실 최종적으로 역사의 완성 단계에서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나사로 사건을 예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독교가 담고 있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로 예수에 묶인 운명을 가진 신자에게 주신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그 영광과 특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엡2:4-6)고 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는 헬라어 시제가 전부 과거 시제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다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우리 사는 것은 전부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완전한 것은 아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유일하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 뿐 인 것을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믿음을 얘기할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 이전에, 신자가 믿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을 때 사실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는 당장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첫 사람 아담에 속하여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비록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다고 해도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이며 믿음으

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앞서 봤던 기차로 설명한 내용을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정, 느낌은 그 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 편의 각오나 내 정성보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자의 두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비록 몸으로 우리 사는 것에 대해 허무에 굴복한 피조세계 안에 존재하며 그 안에 살아야 하는 우리도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현실은 늘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29-39)

질문.

1. 신자의 두 번째 정체성이 뭔가요?
2.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곧 그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릴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3.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내용에 대해 믿음에 대한 기차 설명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신앙 내용을 그렇게 이해할 때, 내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1) 세례의 의미에는 ‘씻음(정결)’ 과 ‘연합’ 이 있다.